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 관계 연구

전무용*

1. 머리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성서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성서 번역 계보도를 만들었다. 그 계보도를 만들 때에, 번역본 간의 영향 관계 또는 번역의 계보 관계를 따라 선을 그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민휴선생실기』에 따르면,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유성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同年(1906)에 兪星濬長老의 翻譯으로 鮮漢文新約이 發行되야 有識階級の 需用에 만히 供給되는지라”¹⁾

유성준은 1902년 2월 ‘일본유학생혁명혈약서사건’에 연루 체포되어 1903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는 감옥서에 있다가 1904년 1월에 황해도 황주에 유배되었고, 1905년 4월에 석방되었다. 그는 감옥서에서 1903년 말에 개종하였고²⁾, 황주에서 처음 교회에 출석하였으며, 1905년 석방되어 서울로 와서 연동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국한문번역에 참여하였고, 1905년 11월에 인쇄소로 넘겨질 때까지 원고를 다듬었다.³⁾ 성경의 번역에 대하여 유성준 본인이 진술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리상재 리원궁 김영식 홍재기 제씨의 권고를 좇차 런던동교회에 입참하여 세례를 받고 기일 박사와 함께 순조선문신약을 선한문으로 교작(交作)하는 일에 종사하며 일변으로 배재학당 한문교사로 한주일 여섯시간씩 교유하고 유쾌하게 지내어왔다.⁴⁾

이 진술은 당시에 이미 번역 출간되어 있던 순 조선문 신약을 가지고 선한문으로 바꾸어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성서공회사에서는 『新約全書국한문』(1906)을, “1906년에 나온 『신약전서』와 한문 『新約全書文理』를 저본으로 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⁵⁾ 본 논문에서는 유성준의 말을 근거로,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번역 작업이 당시에 출간되어 있던 “순조선문신약”을 가지고 이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1) 양주삼 정태웅 편찬, 『민휴선생실기』 대영성서공회, 1937, p. 25.

2) 유성준, “밋음의 동기와 유래”, 『基督申報』, 1928. 7. 4, 11, 25일자 참조, 『基督申報』 영인본 제10권, 1988년 4월 20일, 한국기독교사연구회 발행. 유성준은 본인의 이 회고의 글에서, 1903년 1년 동안 감옥에서 순한문 성경을 일곱 번이나 읽었다고 하였다.

3) 대한성서공회사 II, p. 85 참고. 그러나 이덕주 목사는 그의 논문 “한글성서번역사개관”에서 “유성준은 이 유배기간 중에 한문으로 된 新約全書와 그 무렵에 완역되어 나와 있던 한글 『신약전서』를 가지고 국한문성서를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준 본인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한글 성서 찬송가 백년』, 기독교문사, 1987년, p. 35.

4) 유성준, “밋음의 동기와 유래”, 『기독신보』, 1928. 7. 4, 11, 25. 특히 7. 25일자 『기독신보』. 『대한성서공회사 II』 p. 85도 참조.

5)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p. 87.

루어졌다고 보고, 본문의 내적 증거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국한문 성경을 한문 문리 성경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예수성교전서』의 번역이, 먼저 조선인 번역자들이 한문 문리성경을 한글로 옮기면, 그 초역을 선교사들이 헬라어 성서와 영어 개역성서를 가지고 꼼꼼하게 대조하면서 고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⁶⁾는 것을 생각하면,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번역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수정의 현토 방식의 번역이 이러한 문체로 번역되는 초기 단계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국한문 성경을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리역 한문 성경과의 상관성보다는 우리가 구역이라고 부르는 『신약전서』와의 상관성이 아주 높다. 이와는 반대로 『新約全書文理』를 저본으로 했다는 증거나 징후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름들을 음역할 때, 구역의 음역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新約全書국한문』(1906)에서는, 사람 이름 땅 이름 등의 음역들이 모두 『신약전서』의 음역을 따르고 있다. 그 밖의 중요한 개념어들을 한자어로 번역할 때에, 문리역의 한자어와는 다른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다. 오히려 같은 낱말을 쓴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번역문의 어순이 구역과 같고, 문장 구성 성분들의 수가 구역과 같다는 점이다.

김사요 님은 그의 논문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⁷⁾에서 『대표본 문리역』과 『구역』 『개역』 『일본어 성서』 본문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비교 검토를 보아도 문리역과 구역은 본문의 번역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은 구역과 번역이 일치하고 있다. 구역이 중국어 대표역본의 한자어와 같은 한자어를 사용한 예도 제시하고 있지만, 같은 비율로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도 밝히고 있다.⁸⁾ 같은 낱말이 있다는 것은 한국인 조력자들이 문리역을 참조함으로써 이러한 정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본문에 대한 같은 이해를 따라서 번역하여, 번역문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구역에서 사용한 한자어가 문리역과 다르다는 것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곳들을 살펴 보면, 『新約全書국한문』의 한자어는 구역의 한자어와 같다. 이는 또 『新約全書국한문』이 구역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임을 나타내 주는 증거가 된다. 이는 구역의 번역이 문리역을 대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⁹⁾

본 논문에서는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이 다른 번역본들과 어떠한 관련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본문의 대조를 통해서 밝히는 방법으로, 역본들 사이의 계보 관계를 추적하고자 한다.

2.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문체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문장을 이룰 때에 ‘언해체’(또는 ‘경전언해체’)라고 하며, 이 문체는 중요한 개념어들을 한자어들로 많이 쓰고 있다. 대표적인 문장으로 “훈민정음언해”를 들 수

6) 이환진 전무용 서원석 정리, “예수성교전서”, 『성서한국』 1987. 6. 제 33권 1호, pp. 8-18.

7) 김사요(金佐代), 『일본어 번역 성서가 한국어 개역 성서에 끼친 영향-창세기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2000학년도 석사학위 논문.

8) 김사요, 위 논문, pp. 55-56 참조.

9) 번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전통적으로 한문을 언해할 때에는, 한문 문장에서 사용한 한자어를 철저히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번역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는 방식이 한문의 한자어를 한 글자씩 새기는 방식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이다.

있을 것이다.

世宗御製訓民正音

國之語音이 異乎中國¹⁰야 與文字로 不相流通¹¹호씨 故로 愚民이 有所欲言¹²야도 而終不得伸其情者 | 多矣라

나랏말씀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호씨 이런 전츠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ㅁ배 이셔도 마춤내 제 ㅁ들 시러 ㅁ디 못흠노미 하나라

이 언해의 번역 특징은 철저한 직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번역 특징은 거의 모든 언해에서 나타난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 나가면서 번역하는 방식으로 번역되어 있다. 초기의 언해본인 훈민정음언해나 석보상절은 상대적으로 한자어보다는 우리말 훈을 따라서 번역한 말들이 더 많다.

佛爲三界之尊¹³야 弘渡群生¹⁴호시니니 (釋譜詳節序)

부테 三界엿 尊이 드외야겨야 衆生을 너비 濟渡호시나니

이 본문은 “석보상절서”의 첫 부분인데, “군생”을 “중생”으로 번역한 것이나, “渡”를 “濟渡”로 번역한 것 등은, 한문에 나타난 한자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한국 한자어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러한 변용은, 그 안에 낱말의 글자를 설명하는 데서 “渡동는 濟스 卍 渡동호씨라”로 낱말 풀이를 한 것을 그대로 번역에 올리면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용은 석보상절 안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후대의 유교 경전의 언해로 오면 이러한 경향은 현저히 줄어들고, 또 중요한 개념어를 한문 본문에서 그대로 채용하는 경향이 아주 커진다.

다음은 조선조에 출간된 대학언해 본문이다.¹⁰ 정확한 간행 연도는 알 수 없다. 이하 맹자언해 시경언해 모두 같다. 가끔 맞춤법에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보이나, 그대로 인용한다. 한문 본문은 자간에 제목과 같은 형식으로 音讀이 있으나, 생략한다. 원본에는 띄어쓰기가 없으며, 본문의 띄어쓰기는 필자가 띄운 것이다.

『大大學¹⁵호¹⁶諺¹⁷언¹⁸解¹⁹히』

大學之道는 在明明德²⁰호며 在新民²¹호며 在止於至善²²이니라

大學²³호의 道는 불근 德을 불킴에 이시며 民을 새롭게 훈에 이시며 지극한 善에 止²⁴호에 인느니라

知止而后에 有定²⁵이니 定而后에 能靜²⁶호며 靜而后에 能安²⁷호며 安而后에 能慮²⁸호며 慮而后에 能得²⁹이니

止³⁰호 德을 안 后에 定³¹호에 인느니 定³²호 后에 能히 靜³³호며 靜³⁴호 后에 能히 安³⁵호며 安³⁶호 后에 能히 慮³⁷호며 慮³⁸호 后에 能히 得³⁹호느니라

物有本末⁴⁰호고 事有終始⁴¹호니 知所先後 | 則 卽近道⁴²矣리라

物이 본과 末니 잇고 일이 終과 始 | 이시니 먼저 호며 후에 호 바를 알면 곧 道에 갓가오리라

『孟⁴³뎡⁴⁴子⁴⁵호⁴⁶諺⁴⁷언⁴⁸解⁴⁹히』 卷⁵⁰권⁵¹之⁵²지⁵³五⁵⁴호 滕⁵⁵등⁵⁶文⁵⁷문⁵⁸公⁵⁹공⁶⁰上⁶¹상

滕⁶²文⁶³公⁶⁴이 爲⁶⁵世子⁶⁶에 將⁶⁷之⁶⁸楚⁶⁹호새 過⁷⁰宋⁷¹而⁷²見⁷³孟⁷⁴子⁷⁵호신대

滕⁷⁶文⁷⁷公⁷⁸이 世子 | 되여실제 장츠 楚⁷⁹에 갈씨 宋⁸⁰에 過⁸¹호다가 孟⁸²子⁸³를 보신대

孟⁸⁴子 | 道性善⁸⁵호샤디 言必稱堯舜⁸⁶이러시디

10) 본인의 고조부(名, 龍圭, 1851-1927) 증조부(名, 錫九, 1882-1930)께서 향리에서 서당을 열고 강학을 하실 때에 쓰시던 책. 한지에 인쇄 제본된 것으로, 다섯 번 묶음으로 제본되어 있다.

孟子 | 性의 善함을 道히샤디 말마다 반드시 堯舜을 稱히더시디

世子 | 自楚反히야 復見孟子히신디 孟子 | 曰世子는疑吾言乎니잇(가)¹¹⁾ 夫道는一而已矣니이다
世子 | 楚로브터 反히야 다시 孟子를 보신디 孟子 | 굴으샤디 世子는 내말을 의심히시니잇
가 道는 혼나힐 筭음이니이다

『詩시경경諺언解히』 卷권之지十십六륙 大대雅아 文문王왕之지什什

文王在上히샤 於昭于天히시니 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로다 有周不顯가 帝命不時가 文王陟
降이 在帝左右이시니라

文王이 上에 거샤 於禧다 天에 昭히시니 周 | 비록 넷나라히나 그 命이 新히도다 周 | 顯티
아니냐 帝의 命이 時 아니냐 文王의 陟히며 降히삼이 帝의 左右에 거시니라

여기서 보는 대로, ‘경전언해체’ 또는 ‘국한문혼용체’라고 부를 수 있는 언해 본문과, 한문 문장에 “현토”를 한 본문은, 문체의 개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현토를 한 한문 본문은 한문의 문장 구조가 번역문 안에 살아 있고, ‘경전언해체’는 문장 구조가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 언해본들에서는 “군쟁”을 “중쟁”으로 번역하는 것과 같은 개념어의 변화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유교 경전 언해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번역 특징이다. 한문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모두 그대로 번역어로 받아들이거나 훈으로 새기는 형식으로 번역을 하였다. 특히, 중요한 개념어들은 뜻을 새기지 않고, 그 한자어를 그대로 채용하여 사용하면서, 우리말로 토를 붙이는 형식으로 번역하였다. 번역 원칙으로 볼 때에는 철저한 직역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언해체’ 문장은 바로 이처럼 유교 경전의 언해본들의 언해 곧 번역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러한 문체를 특히 본고에서는 ‘경전언해체’로 부르기로 한다.

‘경전언해체’와 같은 문체로, 한자를 섞어서 쓴 일반 문장을 ‘국한문혼용체’라고도 한다. 이 두 구분은 문체의 형태적 차이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용에 따라서 달리 부르는 것이다. 한문을 번역하면서 사용한 문체를 ‘언해체’라고 하고, 이 문체를 일반 문장으로 사용한 것을 ‘국한문혼용체’라고 하는 것이다. 1883년 10월 창간된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와 같은 신문이 이 문체로 기록이 되었다. 이 신문은 통리아문에서 발간되었고 신문 창간의 주역은 유길준, 박영효 등 개화파 계열의 인물들이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이 두루 사용한 문장이자 이 ‘국한문혼용체’의 문체로 기록된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이 “기미년 독립선언문”이다.

1916년 2월 창간된 감리교회 협성신학교에서 계간으로 발행한 잡지 『신학세계』 창간호의 발간사를 보면, 이 시기에도 경전언해체의 문장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勢力이 果然 壯大히다 홀 터이지만은 教會內에 敎人의 心德을 培養히며 知識을 增進히
雜誌 一種이 無히니 此는 朝鮮 敎友가 雜誌를 購覽치 안는 故로 雜誌를 刊行히는 이가 無히며
또 雜誌를 刊行히는 이가 無히 故로 購覽히지 안는다 홀지로다 然이나 先次 刊行히는 이가 無
히면 엇지 購覽히는 이가 有히리오…”¹²⁾ (띄어쓰기 필자)

또 1922년의 『활천』 창간호에 실린 설교문 하나를 살펴보자.

“……大抵何時던지 何處던지 何集會던지 聖神의 役事가 잇는 同時에 魔鬼의 役事即 人을 속
이는 일이 잇는 것을 諸君은 잘 分辨히시오. 某條로 我等의게 福을 주시는 主를 차차 맞나도록
홀지니라……”¹³⁾ (띄어쓰기 필자)

11) 책에는 “가”가 탈자가 되어 있다.

12) 『神學世界』 창간호, p. 3, “神學世界發刊之辭”, 監理教會 協成神學校, 大正五年 二月十五日 발행.

13) 『활천』 창간호, p. 4. 大正11年十二月二十五日, 東洋선교회, 발행인 길보륜. 돈-론 목사의 설교문 “眞復興과 僞復興”.

‘국한문혼용체’라는 용어는 이 말의 뜻 때문에 후에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간이국한문’이라고 하는 문체를 이르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나중에 올수록, “경전언해체” 문장과 “간이국한문”의 문체인 “국한문혼용체” 문장 사이에 차이가 적어져 간다. 그리하여 근래의 신문 등에서 한글 문장에 한자어를 섞어서 쓴 문장을 모두 국한문혼용체라고 통칭하게 되는 것이다. ‘국한문혼용체’ 본문이 한문의 언해를 위한 문체로써 형성이 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1900년 당시에는 이미 언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문 잡지의 일반적인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독립선언문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체로 기록된 모든 경전언해체 문장을 모두, 근래에 사용되고 있는 ‘간이국한문’의 국한문 혼용체와 구분하기 위하여 ‘경전언해체’로 부르고자 한다.

‘간이국한문’ 문장은 언문일치의 문장에서 다만 한자어로 적을 수 있는 낱말들을 모두 한자어로 적은 것이다. 같은 책에 ‘간이국한문체’로 쓴 글과 경전언해체로 쓴 글이 함께 실려 있다. 신학세계 창간호에 실린 “웨슬레氏의 道理的 講道”¹⁴⁾라는 글에서 한두 문장을 예로 들어 보겠다.

“이 밋음은 사롬이 하느님을 確實히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功勞로 말미암아 自己의 罪를 賜하여 주신 줄 알며 더가 하느님과 더브러 和睦케 하심을 엇은줄 알고 이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힘납어 예수는 더희 智慧와 義와 聖潔함과 贖罪가 되신 主로 依持하는 것이니 혼말노 말하면 더를 救援하신 主로 알고 쫓사지 그를 되시고 좃칠지니라……”¹⁵⁾

근래에 국한문혼용체라 하면 대개 이러한 문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성경의 문체를 다룸에 있어서, 간이국한문의 문체를 특히 따로 지칭할 필요는 많이 느껴지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국한문혼용체라는 용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책 이름 그대로 ‘간이국한문체’로 부르고자 한다. 이 문체와 경전언해체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경전언해체가 지시어 및 대명사를 모두 한자어로 쓰는 데에 비해서, 간이국한문의 언문일치 국한문혼용체는 대명사를 포함한 지시어를 모두 우리 토박이말로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20년 경을 분기점으로 해서 언문일치의 문체는 또 ‘-라’ 종결형을 쓰는 옛 문체(흔히 ‘문어체’라고도 함)와 ‘-다’ 종결형을 쓰는 현대 문체(흔히 ‘구어체’라고도 함)로 다시 갈라진다.¹⁶⁾

창간호 이후로 계속 발간되어온 『신학세계』를 살펴 보면, 제8권 제5호(1923년 11월)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다’ 종결형 문장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교 생활에 입문”이라는 글이다.

“現代에 잇서서 第一 緊急한 宗教的 要求는 그리스도 敎人이 된다고 하는데 對하여 품은 妄想을 除去하는 것이겠다. 아직도 多數人은 엇더한 敎理를 信從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從者자 되는 것인줄노 생각하고 있다……”¹⁷⁾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 종결형 문장이 늘어나면서 ‘-라’ 종결형 문장이 줄어든다. 1925년을 지나면서 ‘-다’ 종결형 문장이 더 많아지다가, 1928년에 이르면, 이 잡지에 실리는 모든 사람의 글이 ‘-다’ 종결형으로 바뀐다.

3.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성경들

14) 하리영, 『신학세계』 창간호, pp. 89-110.

15) 신학세계 제1호, p. 90.

16) 이러한 문체의 규정들은 상대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전언해체를 문어체라 하고, ‘-라’ 종결형 한글 문체를 구어체라 하기도 한다. 학술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부르고 있다.

17) 왕영덕, 신학세계 제8권 제5호(1923년 11월), pp. 31-35. 같은 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글은 아직도 모두 ‘-라’ 종결형 문장이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수정 현토역으로부터 다음 단계로 『新約全書國한문』 본문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하여 살펴 보자. 이수정의 현토한번 번역의 대본이 된 한문 성경은 브리지만·컬벗슨역의 『신약』(1859) 본문이다. 팔복(마태 5:3-12)을 읽어보자.

三虛心者(이) 福矣(니) 以天國(이) 乃其國也(五) 四哀憫者(이) 福矣(니) 以其將受慰也(五) 五溫柔者(이) 福矣(니) 以其將得土也(五(이오)) 六飢渴慕義者(이) 福矣(니) 以其將得飽也(五(이오)) 七矜恤者(이) 福矣(니) 以其將見矜恤也(五(이오)) 八清心者(이) 福矣(니) 以其將見神也(五(이오)) 九施和平者(이) 福矣(니) 以其將稱爲神之子也(五(이오)) 十爲義而遭迫害者(이) 福矣(니) 以天國乃其國也(五(이오)) 十一人爲我而誑諍爾(하) 迫害爾(하) 且妄言諸惡(하) 以謗以(면) 則爾福矣(니) 十二爾宜欣喜歡樂(이) 以在天(이) 爾所得之賞(이) 大也(이) 蓋人(이) 會如是迫害(이) 先於爾之預言者矣(니) (괄호 안의 한글 도는 필자)

『新約全書 國한문』(1906)에서 12절 한 절만을 인용하여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다.

¹² 喜(고) 歡(라) 爾等(이) 天(에서) 賞(을) 受(호) 爾等(이) 大(하) 爾等(이) 前(에) 在(하) 先(知) 者(를) 如(此) 逼(迫) 矣(니)

국한문성경에 “爾宜(너는 마땅히)”가 없는 것이나, “欣喜” “歡樂”이 “欣喜(고) 歡樂(라)”로 번역되지 않고, “喜”나 “歡”으로만 번역된 것도 차이이고, 문리역이 “爾”로만 번역한 것을 “爾等(이)”로 복수로 번역한 것도 확연한 차이이다. “迫害”를 “逼迫”으로, 또 “預言者”를 “先知者”로,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데에 다른 한자어를 채용한 것도 큰 차이이다. 한문 경전의 언해들을 볼 때에, “너는 마땅히” 정도의 내용을, 원문에는 있는데 줄여서 번역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한성서공회사에서 『新約全書國한문』(1906)의 저본으로 언급하고 있는 『新約全書文理』 성경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고전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을 말한다.¹⁸⁾ 1906년 이전에 출간된 것으로 그 가운데서 한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고전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대표본 문리역(신약 1852년, 구약 1854년)과, 브리지만 컬벗슨 역(1859년 1963년)과, 쉬운 문리 웨레체브스키 역(1898년 1902년)이다.

『1852 대표본』은 개정되어 1968 대표본과 1920 대표본이 출간된다. 대표본 성경전서는, 자그마한 이득이 있을 때마다 인쇄하여 출판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인쇄가 잘못되어 잘못 찍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번역을 개정하여 인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872년에는 대표본 보존 및 개정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하고, 1890년에는 상하이 선교사 총회의 화합본 계획에 따라 잘못 인쇄된 것만 바꾸기로 한다.¹⁹⁾ 지금 이 논문에서 1952년 이후로 매번 출간된 역본들을 다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필자의 손에 있는 대표본 네 종류와²⁰⁾ 이환진 목사가 논문에서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표본의 본문들을 대조해 보니, 오탈자 수정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본문은 같았다.

여기에서는 『1854 대표본』 본문과 브리지만·컬벗슨 역 본문을, 마태 5:3-12의 팔복을 중심으

18) 이환진(뉴욕대학교 예술과학대학원 히브리·유다학),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민영진목사 회갑기념 제2권) pp 413-499, 참조. 이환진은 이 글에서 중국어 성서 번역사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9) 이환진, 위의 글, pp. 444-451.

20) 『新約聖書(文理串珠)』, Classical, American Bible Society(上海大美國聖經會), 1921; 『新舊約聖書(文理串珠)』, Wenli Reference New Treatment(Delegates Version) BFBS, Shanghai, 1920(Ed. 1804); 『舊新約聖書(文理串珠)』, 1912년, 상해대미국성경회; 『舊新約聖經』(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상해, 1933.

로,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과 대조하여, 주로 용어를 중심으로 상관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서, 구역 『신약전서』(1900, 1904, 1906)와도 본문을 비교하여, 번역의 유사성과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검토를 거치면, 『新約全書국한문』의 본문이 어느 본문과 상관성이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표본 문리역』과 브리지만·컬벗슨역의 『신약』(1859)과 『新約全書국한문』(1906) 비교

『1852 대표본 신약전서』 팔복(마태 5:3-12)을 읽어보자.

三虛心者福矣, 以天國乃其國也, 四哀慟者福矣, 以其將受慰也, 五溫柔者福矣, 以其將得土也, 六飢渴慕義者福矣, 以其將得飽也, 七矜恤者福矣, 以其將見矜恤也, 八清心者福矣, 以其將見上帝也, 九和平者福矣, 以其將稱爲上帝子也, 十爲義而見窘逐者福矣, 以天國乃其國也, 十一爲我而受人窘逐, 惡言誹謗者福矣, 十二當欣喜歡樂, 以在天爾得賞者大也, 蓋人窘逐先知, 自昔然矣,²¹⁾

『브리지만·컬벗슨역』의 1859년판 신약 마태복음 5:3-12의 팔복을 인용해 보자.

三虛心者福矣. 以天國乃其國也. 四哀慟者福矣. 以其將受慰也. 五溫柔者福矣. 以其將得土也. 六飢渴慕義者福矣. 以其將得飽也. 七矜恤者福矣. 以其將見矜恤也. 八清心者福矣. 以其將見神也. 九施和平者福矣. 以其將稱爲神之子也. 十爲義而遭迫害者福矣. 以天國乃其國也. 十一人爲我而誦諄爾. 迫害爾. 且妄言諸惡以謗以則爾福矣. 十二爾宜欣喜歡樂. 以在天爾所得之賞大也. 蓋人會如是迫害 先於爾之預言者矣.²²⁾

『브리지만·컬벗슨역』의 한문 본문은 앞에서 인용한 이수정역의 한문 본문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본 문리역』과 『브리지만·컬벗슨역』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3-9절에서 “기갈”의 한자어와 9절에서 “施”와 “之”가 더 들어간 것이 다르고, 그 후로는 번역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 『대표본 신약전서』 본문을 다음에서 『국한문』 성경 본문과 비교해 보자.

三心이 虛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天國이 彼等の 거시오 四哀痛흔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彼等이 慰勞함을 受흐 거시오 五溫柔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彼等이 地를 得흐 거시오 六義를 思慕흐기를 飢渴함과 갓치 흐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彼等이 飽흐 거시오 七慈悲흔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彼等이 慈悲함을 受흐 거시오 八心이 清潔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彼等이 上帝를 見흐 거시오 九和陸케 흐는 者는 福이 有흐나니 彼等을 上帝의 子라 稱흐 거시오 十義를 爲흐야 逼迫을 受흐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天國이 彼等の 거시오 十一我를 因흐야 爾等을 辱흐고 逼迫흐고 모든 惡흐다 흐는 謊言으로 誹謗흐면 爾等の게 福이 有흐느니 十二喜흐고 歡흐라 爾等이 天에서 賞을 受흐 것이 大흐리라 爾等보다 前에 在흐던 先知者를 如此히 逼迫흐었느니라

여기서 밑줄 친 부분들은 대표본 문리역 본문과 번역을 비교해 볼 때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다. “彼等, 哀痛, 慰勞, 地, 飢渴, 慈悲, 清潔, 和睦, 逼迫, 謊言, 誹謗, 喜, 歡, 受흐 如此” 등의 낱말들은 문리역과 용어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낱말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용어들이

21) 『文理貫珠 新舊約聖書』.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Shanghai, 1920 (Ed. 1804) (Delegates Version) 본문에서 인용.

22) 이환진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대한성서공회에 1896년에 “대미국성경회인발”로 출간된 『구신약전서』가 있으며, 본문이 같다.

『브리지만·컬벗슨역』의 본문과 같지도 않다. 앞에서 유교 경전의 언해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한문 문장의 언해시에는 거의 이러한 용어의 변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한문 문장의 낱말을 그대로 번역어로 사용한다. 밑줄 친 부분들은 문리역 성경과는 번역상 차이를 보이지만, 반대로 구역 본문과는 용어도 번역도 어순도 같다. 이는 다음의 구역 본문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三마음이 간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四國이 너희 거시오 四이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거시오 五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싸를 차지할 거시오 六의 스모하기를 주리고 목마른 것 七치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빈부를 거시오 七조비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조비함을 받을 거시오 八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거시오 九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랄 거시오 十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四國이 너희 거시오 十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하다 하는 거짓 말도 비방하면 너희게 복이 있느니 十二 깃버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 七치 핍박하였느니라

특히 11절과 12절은 문리역과는 번역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十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것을 거짓 말도 비방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十二 깃버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 七치 핍박하였느니라 (구역)

十一 我를 因하여 爾等を 辱하고 逼迫하고 모든 惡하다 하는 謊言으로 誹謗하면 爾等의게 福이 有하느니 十二 喜하고 歡하라 爾等이 天에서 賞을 受할 것이 大하리라 爾等보다 前에 在하던 先知者를 如此히 逼迫하였느니라 (국한문)

十一 爲我而受人詬誶窘逐. 惡言誹謗者福矣. 十二 當欣喜歡樂. 以在天爾得賞者大也. 蓋人窘逐先知, 自昔然矣. (문리역)

11 我를 爲하여 人(남)에게서 詬誶와 窘逐을 (受하고) 惡言과 誹謗을 受하면 福되다 12 欣喜와 歡樂을 當하라. 天에 在하는 것으로써 爾가 賞을 得할 것이 大하니라. 대개 人(사람)이 先知를 窘逐함이 昔으로부터 然하니라.(문리역의 필자 사역).

이 차이는 『新約全書국한문』(1906)이 『문리역』을 번역 대본, 곧 ‘저본’으로 삼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좋은 예증이라 할 수 있다. 번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문 경전의 언해본들에서 이러한 정도의 용어의 변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단수 “爾”를 복수 “爾等”으로 번역하는 정도의 차이는 문리역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을 때에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변화이다.

또 문리역과 같지 않은 한자어를 쓰는 낱말이, 매번 구역의 용어와는 같음을 보이는 점을 보면, 『新約全書국한문』(1906)이 『구역』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수 있다. 구역과 문리역의 상관성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가깝다 할 수 없다. 구역을 번역할 때에 한국인 조력자들이 참고로 하였던 성경이 문리역이기 때문에, 구역이 문리역에서 왔을 것이라는 가설도 가능하지만, 두 번역이 독자적인 번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많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교하여 보자.

蓋上帝以獨生之子賜世, 俾信之者免沈淪, 而得永生, 其愛世如此. (문리역)

대개 하나님이 독생한 아들을 세상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침륜하는 것을 면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함이라, 그의 세상을 사랑하심이 이와 같으니라. (필자 직역)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역)

上帝가世上을愛하사獨生子를賜하셨스니誰든지彼를信하면滅亡하지 않고永生을得하리라 (국한문)

여기서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리역과 구역과의 상관성이란, 독자적인 번역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지,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문리역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에 구역과 같은 번역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는 한두 곳의 차이가 아니라 본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

5. 구역 『신약전서』(1900, 1904, 1906)와 『新約全書국한문』(1906) 본문 비교

구역 『신약전서』(1900, 1904, 1906)가 연도별로 서로 다른 경우에, 『新約全書국한문』(1906) 본문은 어느 본문과 같은지 살펴보자.

마 5:3

구역 1900 마음이 가난 하니는 복 있는 자로다 천국이 너희 거시오

구역 1904 마음이 간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거시오

구역 1906 마음이 간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거시오

국한문1906 心이虛한 者는 福이有하느니 天國이彼等の 거시오

대표본1920 虛心者福矣, 以天國及其國也,

브리지만·켈벗슨역 新約全書 1859년 虛心者福矣. 以天國乃其國也. (필자직역: 마음이 虛한 者는 福되도다. 천국이 써 그의 나라에 미치느니라)

여기서는 국한문성경이 구역의 “간난한”을 따르지 않고 대표본의 용어 “虛”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한국인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힘들다고 하는 번역상의 문제가 배려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天國이 彼等の 거시오”는 대표본의 번역을 따라서 본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구역 번역을 그대로 채용하여 “천국”과 “ 너희”만 “天國”과 “彼等”으로 바꾼 것이다. 역시 여기서도 『국한문』 본문의 번역은 대표본보다는 구역과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한문 성경의 용어가 일부 대표본과 같으나, 전체적으로는 구역의 번역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5:4

구역 1900 애통 하니는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위로 함을 받을 거시오

구역 1904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거시오

구역 1906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거시오

국한문1906 哀痛한 者는 福이有하느니 彼等이 慰勞함을 受할 거시오

대표본1920 哀憫者福矣, 以其將受慰也,

브리지만·켈벗슨역 新約全書 1859년 哀憫者福矣. 以其將受慰也.

여기서 보면 국한문의 “애통”은 대표본의 “애통”과 한자어가 다르다. 이는 위 3절의 “虛”와는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다. 3절과 4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한문 성경의 성분절(지금의 띄어쓰기 단위) 수가 구역과 같고, 어순이 완전히 같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국한문 성경은 문리역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구역 본문을 바탕으로 체언과 용언의 어간 등의 개념어들을 한국 한자어로 바꾸어서 번역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 1:3b

구역 1900 말씀으로 써 만물이 지은바 거시니 지은 물건은 말씀 업시 지은 거시 업느니라

구역 1904 말씀으로 써 만물이 지은바 거시니 지은 물건은 말씀 업시 지은 거시 업느니라

구역 1906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바 되었스니 지은 물건이 말씀 업시는 지은 거시 하나도 업느니라

국한문1906 道로 萬物이 造흔바 되었스니 造흔 物이 道가 업시는 造흔거시 一箇도 無흔니라

대표본1920 萬物以道而造, 凡受造者, 無不以之而造,

여기서는 역본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한 곳 발견할 수 있다. 1904년 본문까지는 보이지 않던 “하나도”가 1906년도 구역 본문에서는 보인다는 점이고, 국한문 성경이 똑같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리역에서는 “하나도”나 “一箇도”에 해당하는 상응어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無不”(없지 아니하다)이라는 이중부정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전의 번역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서 번역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 어순에 있어서도 문리역을 번역한다면 “만물”이 번역문의 맨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그런데, 구역과 선한문은 “道로 萬物이”라는 어순으로 되어 있어서, 문리역의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순이다. 이러한 것도 또한 『新約全書국한문』이 문리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구역 본문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해 주는 재미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롬 1:1

구역 1900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노는 부르심을 받드러 스도가 되어 하느님의 복을 전함으로 틱함을 넘었스니

구역 1904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드러 스도가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틱함을 넘었스니

구역 1906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드러 스도가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틱함을 넘었스니

국한문1906 예수 그리스도의 僕 바울은 召흔심을 奉흔야 使徒가 되어 上帝의 福音을 傳흔기 爲하야 擇함을 被흔었스니

대표본1920 耶蘇基督僕保羅奉召爲使徒,特命傳上帝福音.

여기서 보면 국한문 성경은 1906년 구역 본문과 내용이 상응하고 있으며, 문리역과 상응하는 점이 있으나, “特命” 부분은 “擇함을 被흔었스니”와 내용이 상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1906년 국한문 성경의 본문은 1906년의 구역 본문과 번역이 같다고 할 수 있다. “僕” “奉” “召” 등의 낱말이 같지만, 다른 낱말도 상당히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문리역이 중요하게 참고가 되었으리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역 본문을 바탕으로 국한문 본문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음역된 말

1900년의 음역과 1904년의 음역과 1906년의 음역은 거의 같지만,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 가운데서 국한문 성경의 음역은 1904년의 음역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1906년의 구역과 음역이 일치하는 부분도 보인다. 다음 비교 음역들은 마태복음의 음역인데, 어느 한 가지 음역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당시의 음역이 어느 한 소리로 정착되기 전이어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음역을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차이를 보이는 낱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문리	1900	1904	1906	1906국한문
伯利恆	벧레헴	벧을레헴	벧을네헴	벧을네헴
伊及	이급	애급	애급	애급
大關	짜윗	짜윗	다윗	짜윗
撒拉	써라	쩌라	세라	세라
波士	쏘아스	보아쓰	보아스	보아쓰
羅波暗	로보함	러호보암	르호보암	러호보암
約沙法	요사파	여오사맛	여호사맛	여호사맛
烏西亞	우시야	우씨야	우시야	우시야
希西家	헤스기야	헤씨기야	헤스기야	헤스기야
馬拿西	마나세	머낫세	므낫세	마낫세
撒拉鐵	서알딤펴	셔알딤펴	스알딤펴	서알딤펴

이들의 간단한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리역의 음역이 구역이나 국한문 성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구역이든 국한문이든 다른 자료로부터 음역이 왔다는 것을 말하며, 선교사들의 주도로 원문 또는 영문으로부터 음역되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7. 『1854 대표본』과 『구역』과 『국한문 성경』의 각 책 제목 비교

『구역』의 책 제목은 1900년 1904년 1906년 모두 같다. 이에 비해서 국한문의 책 제목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차이가 문리역 성경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리역 성경은 목차와 각 책 처음에 나오는 정식 제목이 본문 여백에 있는 약자 제목과 다르다. 미국성서공회판 성경과 영국성서공회판 성경은 정식 제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문리관주 신약성서 BFBS Shanghai, 1920 (Ed. 1804) :

목차 제목, 곧 책 제목: 馬太福音傳, 馬可福音傳, 路加福音傳, 約翰福音傳, 使徒行傳, 使徒保羅達羅馬人書, 使徒保羅達哥林多人前書, 使徒保羅達哥林多人後書, 使徒保羅達加拉太人書, 使徒保羅達以弗所人書, 使徒保羅達腓立比人書 使徒保羅達哥羅西人書,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前書,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後書, 使徒保羅達提摩太前書, 使徒保羅達提摩太後書, 使徒保羅達提多書, 使徒保羅達腓利門書, 使徒保羅達希伯來人書, 使徒雅各書, 使徒彼得前書, 使徒彼得後書, 使徒約翰第一書, 使徒約翰第二書, 使徒約翰第三書, 猶大書, 約翰默示錄

약자 제목: 馬太福音傳, 馬可福音傳, 路加福音傳, 約翰福音傳, 使徒行傳, 羅馬人書, 哥林多人前書, 哥林多人後書, 加拉太人書, 以弗所人書, 腓立比人書 哥羅西人書, 帖撒羅尼迦人前書, 帖撒羅尼迦人後書, 提摩太前書, 提摩太後書, 提多書, 腓利門書, 希伯來人書, 雅各書, 彼得前書, 彼得後書, 約翰一書, 約翰二書, 約翰三書, 猶大書, 默示錄

신구약성서 문리관주 BFBS Shanghai, 1920년판(Ed. 1804)

목차 제목 : 馬太傳福音書, 馬可傳福音書, 路加傳福音書, 約翰傳福音書, 使徒行傳, 達羅馬人書, 達哥林多人前書, 達哥林多人後書, 達加拉太人書, 達以弗所人書, 達腓立比人書 達哥羅西

人書, 達帖撒羅尼迦人前書, 達帖撒羅尼迦人後書, 達提摩太前書, 達提摩太後書, 達提多書, 達腓利門書, 達希伯來人書, 雅各書, 彼得前書, 彼得後書, 約翰第一書, 約翰第二書, 約翰第三書, 猶大書, 約翰默示錄

약자 제목(위의 책과 같음): 馬太福音傳, 馬可福音傳, 路加福音傳, 約翰福音傳, 使徒行傳, 羅馬人書, 哥林多人前書, 哥林多人後書, 加拉太人書, 以弗所人書, 腓立比人書 哥羅西人書, 帖撒羅尼迦人前書, 帖撒羅尼迦人後書, 提摩太前書, 提摩太後書, 提多書, 腓利門書, 希伯來人書, 雅各書, 彼得前書, 彼得後書, 約翰一書, 約翰二書, 約翰三書, 猶大書, 默示錄

책 제목: 馬太福音傳, 馬可福音傳, 路加福音傳, 約翰福音傳, 使徒行傳, 使徒保羅達羅馬人書, 使徒保羅達哥林多人前書, 使徒保羅達哥林多人後書, 使徒保羅達加拉太人書, 使徒保羅達以弗所人書, 使徒保羅達腓立比人書 使徒保羅達哥羅西人書,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前書,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後書, 使徒保羅達提摩太前書, 使徒保羅達提摩太後書, 使徒保羅達提多書, 使徒保羅達腓利門書, 使徒保羅達希伯來人書, 使徒雅各書, 使徒彼得前書, 使徒彼得後書, 使徒約翰第一書, 使徒約翰第二書, 使徒約翰第三書, 使徒猶大書, 傳道約翰默示錄.

신약전서(1904)

목차 제목 :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스도행전, 로마 인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나대 인서, 에베소 인서, 빌립보 인서, 골노새 인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 서, 빌네몬 서, 히브리 인서, 야고보 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데일 서, 요한 데이 서, 요한 데삼 서, 유다 서, 요한 묵시.

약자 제목 :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스도, 로마, 고린도 전, 고린도 후, 갈나대, 에베소, 빌립보, 골노새, 데살로니가 전, 데살로니가 후, 디모데 전, 디모데 후, 디도, 빌네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 베드로 후, 요한 一, 요한 二, 요한 三, 유다, 묵시.

풀어서 번역한 각 책의 제목 : 마태의 기록헌대로 쓴거시오, 마가의 기록헌대로 쓴거시라, 누가의 기록헌대로 쓴거시라, 요한의 기록헌대로 쓴거시오, (사도행전에는 별도의 제목 없음), 스도 바울이 로마인의게 보낸 편지, 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전 편지, 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 편지, 스도 바울이 갈나대 교회에 보낸 편지, 스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스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스도 바울이 골노새 교회에 보낸 편지, 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전 편지, 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후 편지, 스도 바울이 디모데의게 보낸 전 편지, 스도 바울이 디모데의게 보낸 후 편지, 스도 바울이 디도의게 보낸 편지, 바울이 빌네몬의게 보낸 편지, 히브리 인의게 보낸 편지, 야고보 | 각처에 보낸 편지, 베드로 | 각처에 보낸 편지, 베드로 | 각처에 보낸 후 편지, 스도 요한이 각처에 보낸 첫 편지, 스도 요한의 둘째 편지, 스도 요한의 셋째 편지, 유다가 각처에 보낸 편지, 신학스 요한이 맞은 거시라.

新約全書국한문(1906): 이 성경은 목차 제목과 약자 제목이 같다. 다만, 각 책의 처음에, 목차의 책 제목과 같은 이름으로 책 제목을 적으면서, 그 아래에 부제목처럼 책 제목을 다시 풀어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제목들은 명백하게 문리관주신약성서²³⁾의 목차 제목으로부터 온 것이다.

목차 제목 : 馬太福音, 馬可福音, 누가福音, 요한福音, 使徒行傳, 로마, 高린도전, 高린도후, 갈나대

23) 필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BFBS Shanghai, 1920년판(Ed. 1804)이다.

아, 에베소, 밀넛보, 골노새, 데살로니가 前, 데살로니가 後, 디모데 前, 디모데 後, 디도, 빌네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前, 베드로 後, 요한 一, 요한 二, 요한 三, 유다, 默示.

약자 제목 : 마태福音, 마가福音, 누가福音, 요한福音, 使徒行傳,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 갈나디아, 에베소, 밀넛보, 골노새, 데살로니가 前, 데살로니가 後, 디모데 前, 디모데 後, 디도, 빌네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前, 베드로 後, 요한 一, 요한 二, 요한 三, 유다, 默示.

풀어서 번역한 각 책의 제목 : 마태의 紀錄헌대로 書한거시라, 마가의 紀錄헌대로 書한거시라, 누가의 紀錄헌대로 書한거시라, 요한의 紀錄헌대로 書한거시라, (사도행전에는 별도의 제목 없음), 使徒바울이로마인의게達헌片紙, 使徒바울이고린도教會에達헌前片紙, 使徒바울이고린도教會에達헌後片紙, 使徒바울이갈나디아教會에達헌片紙, 使徒바울이에베소教會에達헌片紙, 使徒바울이밀넛보教會에達헌片紙, 使徒바울이골노새教會에達헌片紙, 使徒바울이데살로니가教會에達헌前片紙, 使徒바울이데살로니가教會에達헌後片紙, 使徒바울이디모데의게達헌前片紙, 使徒바울이디모데의게達헌後片紙, 使徒바울이디도의게達헌片紙, 바울이빌네몬의게達헌片紙, 히브리人의게達헌片紙, 야고보가各處에達헌片紙, 베드로가各處에達헌片紙, 베드로가各處에達헌後片紙, 使徒요한이各處에達헌 첫片紙, 使徒요한의둘재片紙, 使徒요한의셋재片紙, 유다가各處에達헌片紙, 神學士요한이受헌거시라.

『문리역』에서 傳道約翰默示錄이라고 한 책 이름을, 1904년 및 1906년 『구역』과 『국한문』 성경이 “神學士요한이受헌거시라”로 번역한 것은, 번역 이상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특히 같다는 것은 『新約全書국한문』(1906)이 1904년과 1906년의 구역과 상관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은 『구역』 및 『新約全書국한문』의 책 제목이 문리역의 제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책의 제목들이 서로 통하는 곳을 보면, 명백하게 문리역의 영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해 온 대로, 많은 경우에 『新約全書국한문』 본문은 문리역과의 상관성보다는 구역과의 상관성이 거의 절대적으로 높다. 또 『구역』이든 『新約全書국한문』이든, 사용한 낱말로 볼 때에 문리역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을 했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은 문리역이 직역 성경이 아니라, 중국어풍에 맞게 번역한 것이라는 번역 특징을 생각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²⁴⁾

8. 맺음말.

이제까지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新約全書국한문』(1906)은 『구역』(1904)의 번역을 바탕으로, 중요한 개념들만을 한국 한자어로 바꾸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문리역』이 중요하게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문리역을 ‘저본’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2) 『문리역』의 한자어들이 『구역』에 수용된 양상을 볼 때에도, 『문리역』이 『구역』을 번역할 때에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참고 이상의 ‘저본’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역을 번역할 때에, 번역자로서 선교사들의 역할과 이를 돕는 한국인 조력자들의 역할이 달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곧 번역의 책임은 선교사들이 지고,

24) 이환진, 앞의 논문, pp. 440-447 참조. 또 『대한성서공회사 II』 p. 136, 특히 난하주 48)에서, “창세기 1장에서 레닐즈의 구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30회, 문리본은 20회 나오는” 점을 밀러가 지적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밀러의 언급은 문리역의 번역 특징 및 문리역과 구역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좋은 예이다.

한국어 문장과 문체의 교정이나 교열 부분을 한국인 조력자들이 맡았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3) 인명이나 지명 등의 음역들을 비교해 보아도, 『국한문』 성경이 『구역』을 따랐으며, 『문리역』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책의 제목 등 전체 체제로 볼 때에, 작업자들이 틀림없이 『문리역』을 가지고서 참고를 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